군종주보

2026년 11월 8일(제1325호)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슬기로운 제자의 모습”

오늘 복음의 청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는 사람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움은 어떤 슬기로움일까요? “슬기로운”에 해당하는 ‘프로니모스’(φρόνιμος)는 마태오 복음에서 총 7번 사용되었습니다. 7번 중 4번이 오늘 복음에 사용되었기에 복음의 다른 본문에 사용된 예시를 살펴보면 ‘슬기로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마태 7,24) 이 말씀은 산상 설교(마태 5-7장)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곧,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는 이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전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행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은 ‘슬기로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마태 24,45)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재능·은총을 형제자매에게 내어주는 것도 슬기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등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처음에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늦어지자 그들이 준비했던 기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를 했지만, 어느 순간 준비를 멈춘 것은 아닐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왠지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는 슬기로움’에는 충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살펴본 마태 24,45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처녀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스스로가 어리석은 제자에 가깝다고 여기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1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제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해봅니다.



김진오(요셉) 신부
강철(육군 제50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지혜 6,12-16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4,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마태 25,1-13
영 성 체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그러던 어느 날 부대로 귀환하자마자 조그마한 성모패를 꺼내 들고,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귀환 포로가 있었다. 6·25 한국전쟁 발발 전 한국 순교 복자 수도회에서 입대하였다가 공산군의 포로가 된 이 베드로였다. 그가 유엔군에 인도되자마자 천주교 신자라고 한 것은 일종의 신변 노출이었다. 당시 공산군은 국군 포로들에게 남한에 송환되면 처형당할 것이니 북에 남으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무사할 듯 싶어 그런 말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다.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이 베드로가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는 성모패를 발각 당하지 않기 위하여 처음에는 옷깃 속에, 다음에는 항문 속에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는 적십자사에서 나누어 준 치약(튜브) 속에 숨겨 보관하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곧 판문점 주재 특파원들을 통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의 주요 일간지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다. 8월 15일 성모 승천 축일에는 노기남 주교가 부대를 방문하여 유엔군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주기도 하였다.

휴전 성립 후에도 김 신부는 변함없이 각 부대를 방문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집전하였다. 또한 토요일 오후에는 교리 연구회와 교리 강좌를 하였고, 월 1회는 해병이 주둔하고 있던 김포와 연평도, 백령도 등을 방문하여 미사와 성사를 집전하였다. 해병 제1전투단은 휴전 후 여단(旅團)으로 승격되었고, 1955년 1월 15일 상륙사단(上陸師團)으로 발전하였다. 그해 초여름 노기남 주교가 방문하여 두 번째로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는데 유엔군에 종군한 각국 신부들과 대사들이 참여하였다. 교황사절 퀸란(Thomas Quinlan) 주교도 방문하여 공동 집전하였다.

김 신부는 군종활동과 함께 대민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사단본부에 인접한 경기도 파주군 금촌 갈곡리 마을은 선조들이 박해를 피하여 정착한 교우촌으로 450여 명의 주민 대다수가 신자들이었다. 그런데 6·25 한국전쟁으로 공소 강당이 불타버렸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향 하나 올리며

늦은 밤,
향 하나 올리며
하늘을 향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두고
앉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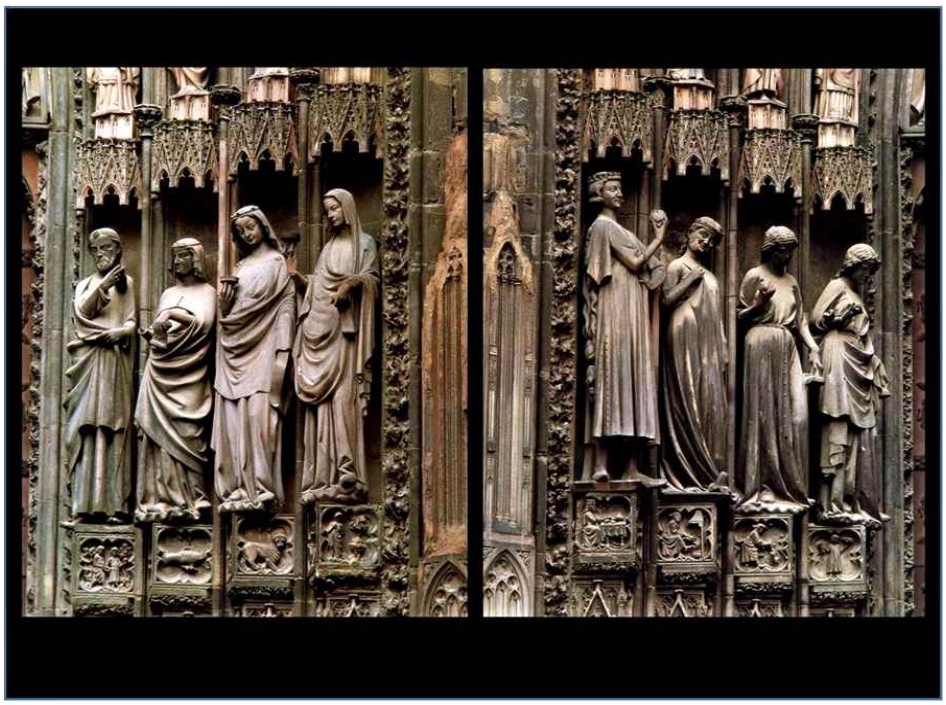
깊은 밤,
작은 마음 열어 놓고
님을 부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 대성당 서쪽 정면 오른쪽 출입구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이 작품은 13세기 후반 고딕 조각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가 미상
1280~1300년경 제작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왼쪽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채워진 등잔을 바르게 들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신랑을 맞이한다. 이들의 표정에는 평온함과 절제된 기쁨이 깃들어 있다. 반면 오른쪽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진 등잔을 거꾸로 들고 있으며, 그 곁에는 사과를 내미는 매혹적인 젊은 남성이 서 있다. 그는 유혹자로, 잘생긴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등 뒤에는 뱀과 두꺼비 같은 흉측한 생물들이 기어다닌다. 아름다운 외양 뒤에 감추어진 악과 도덕적 부패를 드러내는 섬뜩한 표현이다.

이 조각들의 아름다움은 섬세하게 흘러내리는 옷 주름과 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인물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표정에 있는데, 마치 살아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시선을 주고받고 몸을 기울이는 모습은 놀라운 사실성과 우아함을 보여준다. 조각상 아래 받침대에는 황도 12궁과 계절에 따른 농사일이 새겨져 있으며, 출입구 위에는 최후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다. 인간의 일상과 시간의 순환,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있다.

700여 년 전, 이 무명의 조각가는 인간의 나약함과 유혹, 지혜와 구원이라는, 인간을 영원히 괴롭히는 주제를 단단하고 차가운 돌에 우아하면서도 생생하게 새겨 넣었고,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민포대 강진욱 신부

◆ **교구장 동정**

- **동성대(제18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8일(주일)
- **2026년 사제총회 및 연수**
  때·곳: 11월 10일(화)~13일(금), 아론의 집
- **제38회 한일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운영위원회**
  때·곳: 11월 11일(수)~12일(목), 후쿠오카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11월 13일(금) 10:00, 국립서울현충원

" '작은 기정교회' 를 이루는 본인성사의 해"